

#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국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

### 의총 참석자 62명 투표

### 권 원내대표 재신임안 가결

### 책임론 제기 공개 비판 발언도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수사관으로 함께 했던 주기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등을 비대위원으로 인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 임명 의결 절차까지 마쳤다.

지난달 31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고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해체된 당 지도부가 16일 만에 다시 구성된 셈이다.

주 위원장은 오는 18일 비대위 첫 회의를 열어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하는 등 빠른 당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오후 비대위 구성 완료 직후 첫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시급한 건 당의 안정"이라며 "당의 안정, 신뢰 회복,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치러서 후임 지도부를 뽑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 기준으로 "우리당이 비대위로 들어서면서 서로 의견이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그 시비에서 조금 자유로운 분들을 일단 선

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내 일각에서 최근 "비상 상황" 제공자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난센스이다(정우택 의원) 등 권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공개 비판 발언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가 의총장을 퇴장한 뒤 진행된 자유발언에서 송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조해진 임이자 의원이 재신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어 의총 참석자 총 62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신임 안이 가결됐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후 "권 원내대표가 일부 의원들 중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에서 재신임 절차 없이는 원활한 원내대표직 수행이 어렵다고 보신 것 같다"며 "그래서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었고 권 원내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숫자는 저도 확인을 못했지만, 권 원내대표에 대해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시 기회를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비대위원을 선임하는 날이니 비대위 출범할 때 저도 재신임을 묻고 의원님들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비대위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힘 비대위원 9명 중 호남 인사 3명

### 주기환·전주혜·정양석 선임

### 최재민·이소희 청년 비대위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비대위원에 6·1 지방선거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씨 등을 인선했다.

특히 이번 비대위원 인선에는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석홍 전 전남지사의 딸인 전주혜 국회의원과 보성출신의 정양석 전 의원도 포함되는 등 '호남 관련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중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현역 의원 중에는 충청권 조선 업태영 의원과 여성 비례대표 출신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원에 포함

됐고, 서울 지역 재선 의원 출신의 정양석 전 의원도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광주지법·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정양석 전 의원은 광주 살레시오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4년 민청당 공채로 정치에 뛰어들어 주요 당직을 거쳤다

원의 인사로는 주기환 전문위원과 또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최재민 강원도 의회 의원, 변호사인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1980년대생 '청년 비대위원'으로 포함됐다. 광주 출신인 주기환 비대위원은 조선대를 나온 뒤, 광주 지방검찰청 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지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15.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대통령실 첫 개편 실속·내실에 방점...인력 재배치·충원 그칠 듯

### 윤 대통령 "꼼꼼하게 변화 줄 것"

### 학제개편 쪽지 교육비서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적 쇄신론에 "어떤 정치적인 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지가 떨어졌다고 손발 맞추던 사람들을 3개월 만에 내치는 것은 평소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 측근에게 빚발치는 쇄신

요구에 중점을 잘 잡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통령실 개편 규모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오는 17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인 교체보다는 일부 기능 보강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0일간 비서실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일부 비서관급 직제를 바꾸거나 행정관 등 실무진 인력을 재배치, 충원하는 방식으로 재정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회견은 오는 17일 오전 '대통령에게 듣는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40분 동안 진행되며, 출입 기자들과의 즉석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자로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검찰총장 후보 여환섭·이원석·김후곤·이두봉

### 이르면 오늘 1명 대통령에 제청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7기)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천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4명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17일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여환섭(54) 법무연수원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검찰 내에서도 인정하는 특수수사 전문가다. 그는 옛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면서 많은 권력형·기업 비리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이원석(53) 대검 차장검사는 보성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수사지원과장 및 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

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으로도 꼽힌다.

김후곤(57) 서울고검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초실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 올해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는 검찰 내 반대 여론을 선봉에서 대변했다. 이두봉(58) 대전고검장은 강원 양양 출신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쳐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1차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